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뉴턴식 물리학을 넘어서는 신과학의 진리

글 권택영(경희대 영문과 교수)

“큰 것은 넘치고 넘치면 멀리가고 멀리가면 되 돌아온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알쏭달쏭한 말이다. 수수께끼같은 이 말이 첨단을 걷는 물리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책의 원명은 ‘물리학의 도’ (The Tao of Physics)이다.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물의 변화와 생성을 느끼는 시인과 한 알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같다는 말인가. 아니다. 하루는 스물네 시간이요, 한 시간은 60분이라는 기계론적 시간관과 ‘시간이 네 마음속에 있다’는 도(道)사상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카프라가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학은 뉴턴식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이후, 상대성 원리와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4차원의 세계다. 관찰자와 대상이 분리되던 고전물리학을 넘어서 양자, 중성자, 소립자 등. 현대물리학에서 관찰자는 이미 대상의 일부가 된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라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였던 고대 그리스 사상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넘치면 멀리가고 멀리가면 되 돌아온다. 뉴턴식 물리학을 넘어 사물을 더 깊이 파고들면 지식의 한계가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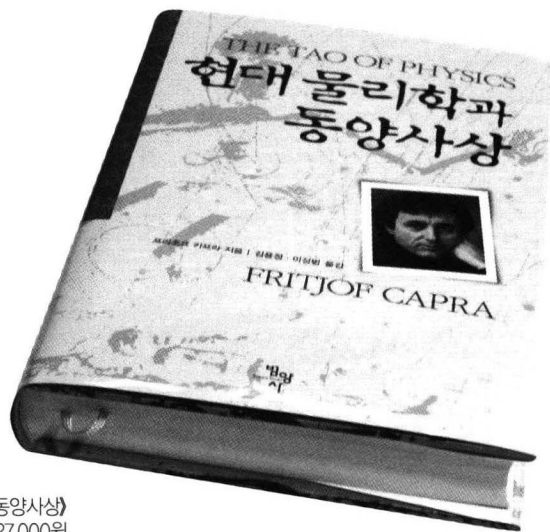
“학문을 닦으면 지식이 나날이 늘고 도를 닦으면 지식이 나날이 줄어든다.” 이 역시 노자의 말이지만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옛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고뇌로부터 해탈을 꿈꾸던 석가모니 역시 지식의 지나친 추구를 경계했다. 객관적인 지식이란 관찰자와 대상이 분리되어야 가능하다. 서구 사상사는 데카르트와 칸트에 이르기까지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믿었다. 이것이 계몽주의와 근대철학이 존재하는 바탕이다. 그런데 관찰자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 더 이상 객관적인 증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양자론에서 소립자는 질량을 재려면 위치가 바뀌고 위치를 고정하면 질량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관찰자는 이미 대상의 일부이다. 주체와 객체가 하나의 끈에 묶여있다. 이것이 카프라가 소개하는 제프리 추의 ‘구두끈 이론’이다. 구두끈은 두 개의 마주보는 구멍을 하나로 이어

춤으로써 구두의 기능을 낳는다.

원자와 아원자의 세계는 객관적인 지각의 영역 밖에 있다. 상대성이론도 마찬가지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찰자가 대상의 일부가 되면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시간은 그것을 재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하루처럼 길수도 있고 1초처럼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하나다.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장소가 있다. 지식과 언어가 주관의 산물이라면 전통지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이런 패러다임은 고대 신비주의와 다르지 않다. 카프라는 신비주의를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종교라고만 믿은 서구 합리주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현대 물리학에 오면 신비주의는 합리주의보다 더 이치에 맞고 진리보다 더 진리다.

신비주의는 우선 관찰자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자연과 인간은 같은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 신은 텅 빈 우주이지만 만물을 낳고 생성하고 흐르게 하는 동인이다. 그 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한다. 강산에 봄이 오는데 누가 거들 수 있고 강산에 겨울이 오는데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계절의 순환은 인간의 의지나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죽음이 삶을 낳고 텅 빈 공간이 만물을 낳는 이치를 객관적인 지식이나 언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빈 것이 채움이요 가득 채움이 텅 빈 공간이라는 모호함을 신비주의는 알고 있었다.

힌두교에서 우주의 영혼인 브라만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만물의 창조주다. 브라만은 노자의 도와 비슷하다. 텅 빈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이다. 노자의 도는 나가라주 불교의 공(空)과 같다. 빈 것은 정말로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요 배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식의 비움이다. 이처럼 동양의 신비주의는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으나 오직 기계론적 합리주의로 볼 때만 그렇다. 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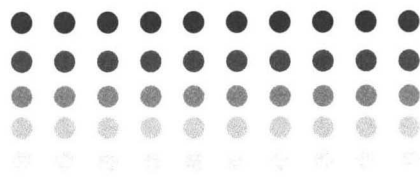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 김용정 · 이상범 옮김 | 범양사 | 458쪽 | 값 27,000원

침을 보여 달라는 제자에게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보여준 스승처럼 불교에서 진리의 깨우침은 설명이 아니라 직관적인 계시에 의해 전달된다. 절에 갓 들어온 젊은 수도승과 조주대사의 대화는 유명하다. 수도승이 “스님, 부디 저에게 만물의 이치를 깨우치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스님은 “죽은 먹었느냐” 수도승이 “예”라고 답하니 스님은 “그러면 네 주발이나 씻어라”라고 답했다는 일화다.

진리는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맞추어 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지 어딘가에 깊숙이 숨어있어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진리는 시바의 춤처럼 즐겁이요, 음양의 조화처럼 흐름이고 변화다. 만물은 하나에서 나온 둘이다. 카프라는 물리학자라기보다 선사에 가깝고 동양인보다 더 동양사상을 터득하고 있다. 그가 논의하는 신비주의는 주로 불교, 힌두교, 도사상인데 그들의 공통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 물리학과 비교한다. 신비주의는 더 이상 모호한 종교가 아니라 신과학의 진리다. 그렇다면 그가 현대 물리학이 고대 신비주의와 같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이성의 지나친 숭배가 수직적인 사회 조직을 초래하고 발전을 믿는 산업사회가 자연파괴를 불러온 것을 반성하는 데 신과학의 윤리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양자론이나 상대성이론이 지닌 주객의 전일성, 혹은 주객의 상호연관성은 고대 신비주의가 지닌 자연의 섭리와 같다. 만물이 흐르고 영원히 생성하고 순환하는 것은 상반되는 대립항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사상에서 무위(無爲)라 한다. 무위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맞추어 살라는 것이다. 자연은 계절의 순환처럼 물 흐르듯이 흐른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인간도 고착이나 집착을 버리고 물 흐르듯이 살라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음양의 조화와 균형에 맞추어 살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한다. 카프라는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윤리임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카프라는 현대물리학과 신비주의를 연결하여 생태파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암시한다. 현대 물리학과 고대 신비주의는 만물을 하나의 전일성으로 해석한다. 하찮은 미물도 큰 것과 상호 연결되고 제각기 가치가 있다. 자연의 먹이 사슬은 하늘의 이치요 음양의 조화다. 그런데 기계론적 사유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대상으로 삼는다. 악이 없이 선이 없듯이 인간은 자연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와 신과학은 생태파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뉴턴식 고전 물리학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 너머의 미식적 세계를 열거하는 카프라의 제안은 신선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그 대안을 사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주필**



● 이 글을 쓴 권택영은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영문학 박사를 마친 뒤 현재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 김환태 평론상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감각의 시대: 리칸으로 영화읽기》 《라캉, 장자, 태극기》 《영어캐락의 시대: 지적이 본 후기 산업사회》 등이 있다